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4) (5/6/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3 장 “진리의 교훈” 1-2 절

시 94:12 -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 115:5 -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막 8:18 -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요 1:3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 덧없고 허망한 수사들이나 말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진리 그 자체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시 94:12).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느낌들은 흔히 우리를 속여서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감춰져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은 등한히 한 채, 호기심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에 마음을 쓰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시 115:5; 막 8:18).

말씀과 해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도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여러가지 말들, 사람의 생각, 사상, 철학,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교훈이다.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도 의존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 자신을 속이고 내 눈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채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것, 단지의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먼저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라고 고백했으며, 암 8:11 에는,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11)고 말씀한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길의 진정한 등불이고 빛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당장 영적 기갈을 경험한다.

2. 생물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속”이나 “종”같은 사변적인 개념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말씀”으로부터 듣는 사람은 온갖 사변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고(요 1:3), 만물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만물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없이는 아무도 올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만물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 진리이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 많은 것들을 읽고 듣는 것이 자주 나를 지치게 합니다.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님 앞에서 모든 박사들로 입을 다물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로 잠잠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만이 내게 말씀하소서.

말씀과 해설: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생각 역시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 55:8-9 -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연구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하며 그것에 지나치게 매여서는 안됨을 알아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유익을 얻으면서도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 40:8 -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 1:14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며 심령에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 롬 10:17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행 10:44-45 - 44.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이 세상의 말들, 세속적 지혜와 지식, 심지어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쏟음으로 영적인 곤핍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2.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고 닫혀진 내 마음을 열어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평안의 역사 가운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3. 척박한 선교 현장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고 주의 종들이 지치지 않고 새 힘을 가지고 사역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